

■ 논문 ■

이주서사로서의 『완득이』에 그려진 성장의 의미\*

신영현 · 강지현

I. 머리말

2000년 이후 엄청난 숫자의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에 입국하고, 국제결혼을 통한 아시아 여성들의 국내 이주도 계속 늘어나면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년 8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결혼, 노동, 학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로 이주한 이주민이 이미 240만 명을 넘어섰다.<sup>1)</sup> 특히 작년 8월 한 달 동안 국내 이주 외국인의 숫자가 전월 대비 0.2%(4,484명)가 증가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해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배태하기 마련이다. 크게는 이주 당사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의 문제와 이들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문제로 나뉠 수 있다. 이주 1 세대의 경우, 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이나 인권 침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주민들의 차별과 학대가 주된 갈등의 요인이 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부모 세대의 차별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신영현)이며(NRF-2019082514),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강지현)임.

1) <https://blog.naver.com/leemyeongkook/221656080938>

여기에 더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이로 인한 방황이라는 문제를 추가로 떠안는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느냐 마느냐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건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김려령이 쓴 소설 『완득이』(2008)와 이를 영화로 각색한 이한 감독의 <완득이>(2011)를 이주 성장 서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완득이』는 2007년 제1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며, 출간 후 700만부가 넘게 판매된 베스트셀러 소설로,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십칠 세 청소년 도완득이 여러 층위의 배제와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자아를 찾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 근거한 이한 감독의 영화 <완득이>는 개봉직후 5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으며, 상영기간 동안 총 오백삼십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였다.<sup>2)</sup>

지금까지 본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다수는 이주서사로서의 『완득이』(혹은 <완득이>)에 주목해 왔다. 예컨대 한국영화에서 다문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이도균의 연구나, 본 작품을 “한국사회에 내재해있던 완고한 순혈주의가 서서히 해체되고,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를 향해 진전해가고 있는 징후”(116-7)로 읽는 허정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반면 본 작품의 성장소설적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 “『완득이』는 성장서사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면서 자아각성에 이른 주인공이 세상과 화해하고 자아를 확인하는 여정을 대중문화적 코드로 보여준다”(294)는 김화선의 연구가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찰해 보는 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의 십대 청소년들은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한국사회에서 거칠고 무심하며 상처받은 영혼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채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뚤어지지 않고 성실하고 착하게”(390) 자라며, “이는 세상의 차별적이고 편견에

2) 네이버영화 <https://tinyurl.com/w2wfp6e>

사로잡힌 시선으로 상처받은 소년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390)이라는 이미림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그 밖에 『완득이』의 서술기법에 초점을 맞추는 황영미의 연구라든가, 한 편의 영화로서 작품의 완성도에 주목하는 배상준의 연구 등 본 작품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연구들이 텍스트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는 대신 기존의 다문화 담론이나 성장서사의 틀에 따라 본 작품을 해석하다보니 텍스트의 맥락과 맞지 않는 억지 해석이나 오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도완득 개인의 성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아니라 수많은 완득이들의 나열이나 평균에 머무는 오류를 범한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제기에서 출발해서 본 논문은 텍스트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해서 본 작품에 대한 균형 잡힌 비평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한 편의 다문화서사로서 본 작품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한 편의 성장서사로서의 성취에 대한 평가를 아우르는 연구가 될 것임을 함의한다.

## II. 본론

### 2.1 다문화서사로서의 『완득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sup>3)</sup>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가구 수는 총 30만6천995가구이며, 이 중 결혼이민자 가구 수가 절대적인 비율(85.7%)을 차지한다.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를 출신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인 23.4%, 비한국계 중국인 19.3%, 필리핀인 6.2% 순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직전 조사(2015년) 때보다 비율이 5.4%포인트나

3)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2009년, 2012년, 2015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되었다. <https://blog.naver.com/hanadarin/221545637205>

증가하여 중국 출신을 제치고 2위에 자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다문화 1세대인 결혼이민자 중 차별을 경험한 비중은 2015년(40.7%)에 비해 약 10% 정도 감소한 반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차별 경험은 9.2%로 오히려 2.3% 정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공부가 어렵다(63.6%)와 교우관계(53.5%)로 조사되었으며,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의 비율도 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절반(48.6%)은 학교폭력을 당해도 그냥 참는다고 대답했다. 이런 조사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기의 심리 정서 위기 지원,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역량 강화’ 등을 담은 다양한 지원방향을 마련 중이다.

『완득이』를 이주서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는 위에 언급된 다문화 관련 상황들이 고스란히 텍스트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작품의 주인공인 완득의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 여성이라는 설정과 함께, 완득과 함께 플롯을 이끌어가는 공동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담임선생 이동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벌이는 일련의 활동을 텍스트가 비중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본 작품은 자연스럽게 이주 다문화서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단일민족과 순수혈통이란 오랜 신화에 취해있던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화시킨 두 주역인데, 이들이 『완득이』의 플롯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본 작품은 다문화서사로서의 전형성을 획득한다. 도완득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온전한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저쪽’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완득이 이주외국인 출신 어머니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혼혈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본 작품을 다문화서사로 읽을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다만 소설에서 완득 엄마가 베트남 여성인 것과 달리 영화에서 필리핀

여성(이자스민 분)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 예컨대, 허정은 “불교 국가인 베트남 출신이었던 완득이 어머니는 영화에서 넓은 맥락에서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 가톨릭을 국교로 삼는 필리핀 출신 이주민으로 바뀌었다”(127)고 비판하면서, 이는 “기독교의 역할을 오롯이 부각시키”(127)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영화에 나오는 완득 엄마가 소설에 비해 더 기독교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지나친 해석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영화에 캐스팅된 것은 연기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베트남 여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자스민의 인터뷰를 근거로, “베트남 어머니가 필리핀 어머니로 바뀐 것은 제작 여건상의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64-5)는 김예림의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 중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필리핀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영화적 설정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민들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겪는 각종 차별과 설움에 대한 직간접적인 묘사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텍스트는 한국사회가 이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과 편견들을 폭로한다. 대표적인 예는 십칠 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와 함께 완득이 신발을 고르는 다음의 장면이다. 엄마의 낡고 촌스런 신발이 맘에 걸린 완득은 엄마를 강권해서 가까운 신발가게로 들어간다.

“저짜 사람 같은데, 학생하고 많이 닮았네.”

주인이주머니는 그분을 저짜 사람이라고 했다. (150)

사실 이 대목에서 신발 가게 주인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의식적으로 이주민을 차별하기 위해서 위의 말을 한 것은 아니다. “학생하고 많이 닮았네”라는 말을 감안하면, 이미 주인은 완득과 완득 엄마의 관계를 눈치 챌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주민 엄마에게 신발을 사주는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해서 건넨 말일 것이다. 문제는

시장 상인이라는 평범한 소시민인 그의 무의식에 피부색으로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는 기제가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구분은 타자에 대한 차별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 완득 엄마에게 주인이 시종일관 하대를 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그런데 타자에 대한 차별의 시선과 언어는 시장 상인이라는 특정 인물의 전유물이 아님은 작품 후반에서 앞집 아저씨에게서 이 표현이 데자뷰처럼 반복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완득이가 어머니를 닮아 인물이 좋구만. 근데 저쪽 사람 같어?”  
언젠가 신발가게 아주머니도 저쪽 사람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왜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저쪽이라는 표현을 쓸까. (180)

이 장면은 작중에서 주인공들과 주된 갈등을 형성하던 앞집 아저씨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마치 축제와 같이 흥겨운 음식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다. 모든 갈등이 마무리되고 이해와 화해의 분위기로 접어드는 순간이다. 따라서 이 순간 앞집 아저씨가 건네는 말에 반감이나 악감정이 섞여 있을 리 없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의 말은 더 강렬하게 한국인들의 정신세계 속에 집단 무의식으로 남아 있는 편 가르기와 타자 차별을 드러낸다.

사실 이러한 차별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구분이 아니다. 완득의 관찰대로 ‘저쪽 사람’은 유독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만 붙는 호칭이다. 정선주는 “‘저쪽 사람’, ‘저쪽 사람’이란 개념이 저쪽에서 온 사람이란 단어 상의 정의가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등 잘사는 나라가 아닌,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계는 몰라도 우리나라보다는 경제적으로 열등한 나라들 중에서 온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139)이라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그는 “피부색이 일반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희면 우선적인 호감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짙거나 검으면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와서 노동하는 계층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해 버리고, 막연한 반감과 깔봄으로 대하는 일종의 피부 색깔에 대한 사대주의 경향”(140)이 한국인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계성 역시 “한국

안의 인종차별, 백인선호,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성찰하며 반성하여야 한다”(197)고 지적한다. “본 작품에는 완득이 자신이 다문화청소년으로서 느끼는 정체성 고민, 다문화인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당하는 차별이 크게 나타나 있지 않다”(하웅용 53)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런 장면을 통해 작품은 다문화인들이 겪는 차별을 충분히 생생하게 형상화한다.

본 작품이 다문화서사로서의 전형성을 지닌 또 다른 측면은 결혼이주여성인 완득 엄마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가 십칠 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설정을 들 수 있다. 이는 필요에 의해 결혼을 선택한 전형적인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 차이,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불화를 겪거나 이혼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림은 “남성의 성 욕망과 여성의 친절을 도우려는 경제 이유가 뚜렷한 결혼생활은 의심과 무책임, 소외와 고립을 동반한다”(146)고 분석한다. 또한 “가난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주 여성은 장애가 있거나 지나치게 나이가 많거나 불구인 한국남성과 만나는 주변부끼리의 결합이 많다”(이미림 380)고 지적한다. 표면적으로 도정복과 완득 엄마의 결혼은 일반적인 국제결혼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지닌 관계이다. 가난한 나라 출신의 여성과 장애가 있는 나이 많은 한국남성의 결합 및 이어지는 이주 여성의 가출 등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 부부가 겪는 갈등은 일반적인 국제결혼가정의 불화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지닌다. 예컨대, 완득 엄마가 남편을 떠난 이유는 사기 결혼에 속았다거나 남편과의 성격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역설적으로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집을 나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떠났다고요! 이 여자 저 여자 손잡고 춤추고, 아무나 당신을 만지고…….” (170)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 엄마보다는 한국인 아빠가 나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 어린애가 혼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 싫어도 끝까지 옆에 있었을 거라고요!”  
(170)

여기서 과연 완득 엄마의 설명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내로서의 의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도피한  
자신의 선택을 미화하는 자기변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집과  
직장을 바꾸는 바람에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완득 부자를 찾으려  
노력한 것이 사실임을 감안하면 완득 엄마의 설명을 굳이 의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떠나는 부인을 잡지 않은 이유를 도정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숙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팔려 나온 하녀 취급하는 게 싫었다.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들 뒷일이나 해주는 사람으로 알더라. 가는  
모습 봤는데, 못 잡았다.” (82)

“찾긴 뭘 찾아, 혼자 속 편하게 살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나도 싫었어. (170)

즉, 도정복이 떠나는 아내를 잡지 않은 것은 그녀가 장애인 춤꾼인 자신의  
처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가슴 아팠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서로가 싫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같이 있을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현실 때문에 헤어지기로 선택한 것이다. 사실 『  
완득이』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무거운 주제를 너무 유쾌하고 긍정적인  
필치로 그린다는 점이다. “이 작품의 낭만적인 결말은 다문화사회에  
내재된 이러한 골 깊은 갈등을 은폐하는 환상으로 작용한다”(131)는  
허정의 비판이나, “적어도 장애인 남편과 어린 아들을 쫓아왔고, 가족의  
소재를 안 후에는 식당일 틈틈이 그들을 챙기면서 쉬는 날마다 반찬  
통을 들고 나타나는 그녀는 ‘비정상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만들고자 애쓰는 결혼이주여성의 판타지”(144)라는 정선주의 비판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현실의 갈등은 작품에서처럼 봉합될 수 없다”(허정 129)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는 여기서 도정복의 가정이 여러 가지 악조건들과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화해와 상호이해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일반적인 다문화가족들이 가진 갈등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다. 도정복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한 배려와 공흥의 시선이 깔려 있으며, 이런 바탕이 있기에 행복한 결말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다문화영화와는 달리 완득이 엄마와 완득이 아버지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헤어지게 됨을 알게”되며, “따라서 이 장면은 완득이가 행복한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만든다”(357)는 박범종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사실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 가정을 비정상적 가정으로 규정하는 시선이야말로 어찌면 더 폭력적일 수 있다. 이런 시선을 깔고 보면 너무도 우울하고 갑갑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맞장을 뜨는’ 완득이의 유쾌한 도전이 현실성이 결여된 판타지일 뿐이다. “완득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다문화인은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벗어나갈 것”(125)이라는 허정의 주장대로 사실 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다문화가족의 현실보다는 한국사회가 품고 있는 이상적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상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러나 바흐젠의 카니발 이론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판타지는 현실의 망각이나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견고한 현실에 균열을 가하는 전복적 힘을 지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판타지가 독자를 끌고 가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이다. “영화 『완득이』가 제시하는 인종과 타자들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방식은 ‘환상적인 해결책’과 선의를 지닌 주체들 간의 연대라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140)고 이기형은 비판하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선의를 지닌 주체들의 연대 없이

무슨 개선과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보다는 “이 작품의 긍정적 세계관은 카니발적 연회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바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에서 강렬하게 나타난다”(172)는 김미영의 접근이 더 온당한 해석이다. 본 작품이 지닌 카니발적 요소는 비단 완득 엄마가 이웃들을 초대해서 차린 공동체적 식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본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모티프이다. 본래 카니발이란 일상이 아니며 오히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 탈출은 일상에 대한 망각이나 도피가 아니라 일상의 변혁을 추동하는 힘이 있다. 『완득이』가 판타지라면 그 판타지는 독자나 관객에게 다문화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현실의 변화를 주문하는 판타지이다.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 가정을 비정상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시선과 태도의 변화를 주문한다. 『완득이』는 모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완득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닌 선한 이방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강변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의 현실이 여러 측면에서 힘겨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완득처럼 긍정적인 마인드와 현실과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배워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멘토와 가족의 사랑이 뒷받침된다면, 한국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다는 바람을 유쾌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 2.2 성장소설로서의 『완득이』

성장소설로서의 완득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장소설의 문법에 비추어 읽을 필요가 있다. 이미림에 따르면, “성장소설은 유년기, 사춘기를 거쳐 성년이 되는 통과의례인 입사형식이 내포된 소설장르로 주인공의 각성과 성숙의 과정을 보여준다”(392). 통과의례란 다른 말로 입문(initiation)이라고도 하는데, 아이작 세퀴라(Isaac Sequeira)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입문이란 청춘기의 주인공이 자신과 악의 본성과 세상에 대해서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는 어떤 경험과의 실존적인 대면 혹은 일련의 대면으로서, 대개는 고통스럽다. 이 지식은 순진성의 상실 및 고립감을 동반하며, 이것이 영속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행동에서의 변화로 귀착되어야 한다. …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에 성인 사회로의 조정 가능한 통합으로 나아간다. (234)

요약하자면,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입문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고, 대개 이런 지식은 성인 사회로의 통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장소설의 일반적 구조이다. 계속해서 세쿼라는 입문의 종류를 완결된(decisive) 입문, 미완의(uncompleted) 입문, 유사(tentative) 입문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234). 완결된 입문이라 함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겪어내고 자신의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소중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미완의 입문은 입문의 문턱을 넘어가긴 하지만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이고, 유사 입문이란 어느 정도의 고통과 환멸을 경험하긴 하지만 결국 입문의 문턱을 건너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런 구도에 따르면 『완득이』의 주인공 도완득은 완결된 입문을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성인사회로 진입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완득은 어떤 면에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첫째, 결과 속이 다를 수 있는 복합적 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완득은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담임선생인 이동주에 대한 변화되는 인식으로 나타난다. 소설의 첫대목은 이동주(똥주)를 죽여달라는 완득의 기도로 시작된다.

‘똥주한테 현금 얼마나 받아먹으셨어요. 나도 나중에 돈 벌면 그만큼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똥주 좀 죽여주세요. … 일주일 내내 남 괴롭히고, 일요일 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9)

완득이 똥주를 미워하는 이유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약점을 굳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분해서이다. 실제로 똥주는 저소득층에게 나오는 수급품을 완득에게 가져가라고 온 학교에 들리도록 지시한다. 심지어 똥주는 완득이 가져간 수급품을 뺏어 먹기까지 한다. 완득에게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똥주이다.

“아버님이 말 안 해?”

어머니라…….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 없고, 나도 들은 적 없다. 그런데 똥주가 어머니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베트남 사람이라.

“네가 아버지 안 닮았다고 했더니 좋아하시더라. 많이 걱정했나 봐.”

“저 어머니 없는데요.”

“있어, 새끼야. 전부터 느낀 건데, 니네 집 가계도는 뭐가 이렇게 정직하냐. 구성원 하나하나가 참 ……”

하나님, 이번 주 안으로 똥주 꼭 죽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폭파시킵니다. (41-42)

그러나 이와 같은 이동주의 도발은 자꾸 자기 속으로 숨어드는 완득을 세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다. 자신의 약점을 들쭉시키고 까발리는 것에 항의하는 완득에게 이동주는 다음과 같이 꾸짖는다.

“한 번, 한 번이 쪽팔린 거야.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남의 약점 가지고 계속 놀러먹는다면, 그런 놈들은 상대 안 하면 돼. 니가 속에 숨겨놓으려니까, 너 대신 누가 그걸 들추면 상처가 되는 거야. 상처 되기 싫으면 그냥 그렇다고 니 입으로 먼저 말해버려.” (136-137)

대단히 거친 언사로 표현되긴 하지만, 똥주의 조언은 정신분석학의

소위 ‘말하기치료’(talking cure)에 해당되는 처방이다. 이는 프로이트의 환자였던 20대 여성 안나 오(본명은 베르다 파펜하임)가 히스테리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억압된 외상(trauma)의 내용과 이와 연관된 감정들을 털어놓자,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프로이트의 치료방식을 말하기치료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한다.<sup>4)</sup> 굳이 거창한 이론에 기대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억눌러온 수치나 상처를 표출하면, 부정적 감정은 약화되거나 사라지기 마련이다. 결국 완득 역시 자신을 향한 똥주의 도발이 자신에 대한 무시나 미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오라는 초대임을 알게 된다.

한편 똥주의 폭력적 언사 뒤에 숨은 선한 동기를 읽어내는 것과 정반대로, 교회 신도 아무에게나 “자매님”을 남발하는, 사람 좋아 보이는 핫산이 사실은 동료들을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고용주가 고용한 염탐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역시 완득이 성장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내면에 감춰진 동기를 구분해서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완득의 성장을 구성하는 주요한 측면이다.

둘째, 완득의 성장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의 습득으로 나타난다. 사실 작품 초반에 완득은 욱하는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쓰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 초반부의 완득을 “상처투성이의 문제아”이자 “학교에서는 반항아이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온 제자”(415)로 규정하는 송현호의 평가가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완득에게 내재된 폭력 성향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찾지 못한 답답함의 발로이다.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놀리지만 앓았다면 싸우지 앓았다. 그건 싸움이 아니었다. 상대가 말로 내 가슴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고, 나도 똑같이 말로 건드릴 자신이 없어 손으로 발로 건드렸을 뿐이다. (122)

완득으로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몸으로 이를 표현한 것이지만, 사회는 이를 ‘폭력’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완득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시 말해 완득의 성장의 핵심 요소는 말하기 능력(orality)의 습득이다. ‘orality’란 ‘story-telling’이란 뜻으로, 개인이 담론의 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타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의도한 성과를 이끌어 내는 행위를 지칭한다. 완득의 말하기 능력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다음 대화 장면이다.

“나도 아버지가 부자면 옥탑방이 아니라 지하도에서도 살 수 있어요. 사고 쳐도 다 해결해주는 아버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도 가난해서 다른 나라로 시집온 어머니 있어봤어요? 쪽팔려 죽겠는데 안 가져가면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수급품 받아가 본 적 있어요?”

“새끼가 주둥이로 킁복성을 배웠다. 말 잘하네.” (135)

일부 평론가들이 완득의 성장이 지나치게 동주 의존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위 대화 장면에서 나타나듯이 완득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인 인물이 아니다. 허정은 “동주의 헌신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연민의 대상을 돕는 시혜적인 행위가 아닌지 … 의문스럽다”(120)고 비판하지만, 이미 이는 완득의 입으로 아프도록 정확하게 동주에게 제기된 물음이다. 동주는 이에 대해 “말 잘하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완득의 성장은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완득은 세상을 피해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숨어 지내던 아이였다. 작품 마지막 대목에서 완득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하—. 이 동네 집들 진짜 딱딱딱 붙어 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숨어있기에 딱 좋은 동네였다. 왜 숨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너무 오래 숨어 있어서 두렵기 시작했는데, 그저 숨는 것밖에 몰라 계속 숨어 있었다. 그런 나를 똥주가 찾아냈다. (233)

똥주에 이끌려 세상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세상으로 나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완득이로서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제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 일차적으로 이는 완득이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똥주에 의해 십 칠년이나 모르고 지내 온 자신의 혼혈인 정체성을 알게 된 완득은 처음에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엄마와의 만남과 동행 끝에 완득은 이를 수용한다. 이것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작품 말미에서 완득 엄마가 준비한 잔치상에 참여한 앞집 아저씨의 질문에 완득이 엄마의 존재를 밝히는 장면이다.

“그럼 이분은…….”

그분을 두고 한 말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똥주가 나설 만도 한데 이번에는 나서지 않았다. 척 봐도 한국 사람은 아니고, 이런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둘 리 없으니 앞집 아저씨는 그분이 꽤 궁금한 모양이었다.

“제……어머니입니다.”

목에 콧 박혀서 나오지 않는 말을 가래 뱉듯이 힘들게 했다. 막힌 가래를 뱉으면 이렇게 시원하다. 그분이,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179-80)

완득이 이주여성인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타자적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순간 막힌 가래에 비유되는 완득의 상처와 수치, 울분이 해소되며, 그러기에 시원한 청량감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완득 엄마 역시 그동안 행여 자신 때문에 남편이나

자식이 힘들까 봐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정복의 아내로, 도완득의 엄마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표명한다. 그것이 이 순간 그녀가 갑자기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 이상 남들 앞에서 자신을 숨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식탁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한편, 완득이 관계 맺기를 배워야 하는 또 다른 대상은 아버지이다. 사실 완득 부자는 처음부터 서로를 향한 애뜻함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완득이 폭력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남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도정복 또한 아들의 교육을 위해 힘든 서울살이를 감내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들 부자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관계이다. 그러나 도정복은 완득이 킥복싱을 배우는 걸 완강하게 반대한다. 장애인인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몸 쓰는 것밖에 없어서 춤을 추지만, 사지 멀쩡한 아들은 운동 대신 다른 일을 하면서 ‘남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게 놔두세요.”(171)라는 아내의 부탁과 관장과 똥주의 설득 끝에 도정복은 완득의 킥복싱을 허락한다.

“나도 내 몸이 싫었다. 이게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멀쩡한 너한테까지 꼬리표를 달아주더라. 부모가 도움은 못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말을 한마디씩 해. 그래서 되도록 너하고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 (197)

“우리 서로 인정하고 살자.”

“뭘 인정해요?”

“너는 내 춤을 인정해주고, 나는 네 운동을 인정해주고. 우리 몸이 그것밖에는 못 하는 모양이다.” (202)

여기서 도정복은 운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아들의 요청을 허락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자신의 소수자 정체성을 수용하기로 결심한다. 지금까지 도정복은 완득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 자신을 숨겨 왔고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완득 역시 혼자만의 세계에 숨어 살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지 않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몸을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완득의 킥복싱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완득의 성장은 혼자만의 고립된 성장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적 관계를 통한 동반 성장의 형태를 띠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완득은 “아버지와 내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 이 열등감이 아버지를 키웠을 테고 이제 나도 키울 것이다. 열등감 이 녀석, 은근히 사람 노력하게 만든다”(204)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타하는 대신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결심이라는 점에서 완득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성장의 과정에서 완득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완득이』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나 장면은 이 하나의 교훈으로 수렴된다. 작품을 끌어가는 세 부류의 중심인물들은 하나같이 뭔가 남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완득 엄마는 이주 여성이라는 인종적·성적 소수자이다. 도정복과 남민구는 장애를 지닌 신체적 소수자이다. 주인공인 완득 역시 혼혈인 내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문화적·혈통적 소수자이다. 심지어 이동주마저 부잣집 아들이자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파출소에 불러갈 수 있는 불운한 인물이라는 딱지가 붙은 정치적 소수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자들은 주류 사회의 의심과 불신에 찬 시선의 응시 대상이 되며, 주류 사회에 의해 타자로 배제된다. 위에 나온 완득의 독백처럼 이런 상황에서 소수자들은 열등감을 갖기 쉽다. 물론 이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이런 소수자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관용단계, 비차별적 법제화단계, 다문화주의 단계(윤일수 310)라는 3단계의 다문화정책 중 두 번째 단계의 과제이다. 한국사회는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딘 편이며, “소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계”(윤일수 310)인 세 번째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단계에 이르면 소수자들이 더 이상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발전에 이르기까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열등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많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현실적인 과제이다. 완득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한다. 완득의 방식이 하나의 정답으로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는 완득의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주라는 캐릭터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을 잠깐 살펴보자. 완득의 성장에 대한 평가는 이동주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완득의 성장에서 결정적 기여를 하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완득의 담임인 이동주이다. 이동주는 자신 속으로 마냥 움츠러들기만 하던 완득을 세상 속으로 끌어내어 마침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나아가 세상과 소통하도록 성장시키는 인물이다. 문제는 동주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김화선은 “실로 『완득이』의 성공은 똥주라는 인물의 탄생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290)라고 높이 사면서도 “바로 이 점은 완득이표 성장에 담긴 빛과 그늘”(290)이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똥주를 지나치게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 작위적인 설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292)기 때문이다. 이기형 역시 “동주 선생의 캐릭터는 상당 부분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과도하게 이상적이고, 헌신적인 측면을—혹은 ‘나르시시스트’인 단면을—발현한다”(138)고 비판한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단 하나 뿐인 아들이 그것을 버리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 가난을 선택한다는 설정”은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낭만적”(79)이라는 계운경의 지적 역시 마찬가지이다. 요는 이동주는 지나치게 선하고 과도하게 영웅적인 인물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런가? 김화선은 “특히 똥주가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사회운동을 하는 저변에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한 악덕 자본가인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설정은 오히려 똥주의 설득력 있는 캐릭터를 도식적으로 전락시키는 대목”(292)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동주의 낭만성, 비현실성에 대한 이와 같은 지적은 사회운동가는 모두 가난한 집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동주의 이러한 사회참여는 그야말로 그가 악덕 자본가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즉 소위 ‘있는 집 자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동주는 빠듯한 월급으로 먹고 살기에 급급한 평범한 교사가 아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그의 행동은 자본가라는 힘 있는 아버지를 뒷배로 두고 있기에 가능한 행동일 수 있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말이다. 이 점은 완득을 통해서 통렬하게 지적된다.

“나도 아버지가 부자면 옥탑방이 아니라 지하도에서도 살 수 있어요. 사고 쳐도 다 해결해주는 아버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예요?”

...

선생님은 그냥 가난을 체험해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든든하게 돌아갈 곳을 저기에 두고, 가난 체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갈 곳 없는 가난을 선생님이 알아요?” (135)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동주의 캐릭터는 리얼리티가 떨어지기는커녕 너무도 현실감 있는 캐릭터이다. 이동주에 대한 보다 신랄한 비판은 “자신의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 없이 동주는 끝까지 베푸는 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119-120)이라는 허정의 비판이다. 실제로 이동주는 작품의 마지막까지 시혜자의 위치에 남아있다. 그러나 그가 이주민이나 다문화인들보다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우월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도움을 베푸는 것일 뿐임을 감안한다면, 굳이 이 위치가 역전되거나 바뀌는 부자연스런 설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본 작품의 제목이 『완득』 내지는 『도완득』이 아니라 『완득이』임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본 작품은 누군가의 시선에 비쳐진 완득의 성장기이지 완득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시선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인가? 누구보다도 완득의 가까이에서 그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이를 견인한 인물인 동주의 시선이야말로 『완득이』를 끌어가는 일종의 카메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작품이 동주의 자기성찰까지 담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

### III. 결론

『완득이』(혹은 <완득이>)는 지금까지 많은 비평적 관심을 받아 왔으며, 본 작품이 지닌 이주 서사로서의 특징과 성장소설적 요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작품을 균형 있게 조망하기 위해서는 두 주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주서사로서의 『완득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작품 외적인 현실이 준거가 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작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본 작품이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충분히 제대로 그리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해 한국사회가 품고 있는 판타지가 드러난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한 억지 해석이나 과장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 논문은 텍스트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서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텍스트의 논리를 따라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비판들을 넘어서 텍스트의 성취에 대한 균형 잡힌 자리매김을 제시하였다.

본 작품의 성장소설적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상당 수가 주인공의 성장을 가능케 한 원인의 나열에 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작 오랜 전통을 지닌 문학 장르로서의 성장소설적 특성을 제대로 규명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성장소설에 대한

정의 및 성장소설이 지닌 문법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해서 『완득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신만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던 십칠세 소년 도완득은 담임선생인 이동주의 도전에 이끌려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어른이 되어 간다. 완득의 성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재를 구분해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둘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되, 사회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간다. 폭력이 아니라 말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필요하면 상대를 설득할 줄 아는 능력은 완득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완득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 작중에서 이는 이주 여성인 엄마를 수용하고 장애인인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완득은 장애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등 자신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속한 소수자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함을 배운다. 자신의 소수자적 정체성으로 인한 열등감을 당장 떨칠 수는 없을지라도, 이를 자기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겠다는 완득의 결심은 이후의 그의 삶에 대한 기대를 독자에게 품게 한다. 완득은 변화한 자신의 삶의 자세를 작품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흘러보낸 내 하루들. 대단한 거 하나 없는 내 인생, 그렇게 대충 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좋다. 작은 하루가 모여 큰 하루가 된다. 평범하지만 단단하고 짙찬 하루하루를 꿰어 훗날 근사한 인생 목걸이로 완성할 것이다.

(233-234)

지금까지 완득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하나같이 보잘 것 없는 것들이어서 자신의 삶은 가치가 없으며 따라서 대충 살아도 되는 삶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 완득은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기 위해서 굳이 거창하고 대단한 성취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낸 일상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yhshin@hansung.ac.kr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junokang@hansung.ac.kr

주제어(keywords):

『완득이』 (*Wandeuki*), 이주성장서사(migration growth narrative),  
외관과 실제 구별하기(discerning appearance from reality), 이야기하기  
(orality), 관계맺기(relationship building)

(투고일: 2020.03.24, 심사일: 2020.05.03, 게재확정일: 2020.05.06.)

<국문초록>

이주서사로서의 『완득이』에 그려진 성장의 의미

신영현 · 강지현

2000년 이후 동남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확대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배태하기 마련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부모 세대의 차별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여기에 더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이로 인한 방황이라는 문제를 떠안는다. 본 연구는 김려령이 쓴 소설 『완득이』와 이를 영화로 각색한 이한 감독의 <완득이>를 이주 성장 서사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주 서사로서의 『완득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타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과 편견을 폭로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피부색에 근거해 우리와 저들로 구분하며,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편 가르기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구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짙은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의식에 각인된 뿌리 깊은 백인선호, 흑백 차별, 사대주의 등을 보여준다. 도완득은 장애인 아버지를 둔 가난한 집 아이라는 자신의 환경에 주눅이 들어서 혼자만의 세계에 숨어 지내 온 십칠 세 소년이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과 수치를 세상에 떠벌이면서 세상으로 나오도록 도발하는 담임선생 이동주에 이끌려 세상과 마주하며,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 이 과정에서 완득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에 숨겨진 실체를 구분해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법을 배운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폭력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이야기 능력을 배운다. 끝으로, 완득은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 이는 이주여성이라는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장애인이라는 신체적 소수자인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bstract>

The Meaning of Growth in *Wandeuki* as a Migration Growth Narrative

Shin Younghun · Kang Jihyun

Since 2000, the number of Asian immigrants has explosively increased due to a high number of Southeast Asian laborers entering Korea and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Southeast Asian women and Korean men. As the result, Korean society has rapidly chang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Most notably,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not only experience racial discrimination, but they also suffer from identity crisis as well. This paper analyzes the novel, *Wandeuki* and its eponymous movie as migration growth narratives. They disclose our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al gazes against foreigners. They also show that Korean society tends to unconsciously look down on dark-skinned foreigner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order to grow into adulthood in such a society, the protagonist is required to learn and acquire some essential traits. First, he should learn how to discern the hidden truth from the external appearance, which enables him to figure out the real motives of people. Second, he needs to achieve orality through which he can express what he thinks and feels and persuade others. Orality is a necessary skill in order to be acknowledged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Finally, he also learns how to build relationship with people around him. He especially needs to admit and accept his Vietnamese mother. He also recovers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with his father



as his father ends up retracting his strong disapproval of him and allowing him to practice kickboxing. It can be said Wanduk successfully goes through initiation into the adult world in that he finally admits his own identity as a multicultural adolescent and reaches reconciliation with the world.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김려령, 『완득이』 (파주: 창비, 2008).

### 2. 논문

계성, 「성장소설로 본 한국의 다문화 공간-중국인 거리, 코끼리, 완득이를 중심으로」, 『중국어언문화연구』, 11권(2016).

계운경, 「〈완득이〉의 상업전략과 사회질서의 유지재생산: 부르디외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5호(2013).

김미영, 「다문화 가족의 얼굴들」, 『다문화교육연구』, 2권 1호(2009).

김예림, 「‘존중’ 없는 사회의 대중문화, 그 욕망과 미망에 대한 단상: 『도가니』와 『완득이』를 중심으로」, 『문학과사회』, 5월호(2012).

김화선, 「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성장의 문제: 김려령의 『완득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권(2008).

박범중, 「영화 〈완득이〉를 중심으로 본 다문화사회의 차별과 소통」, 『문화와융합』, 41권 2호(2019).

송현호, 「〈완득이〉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동반자적 교사의 역할과 의미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9권(2015).

윤일수, 「다문화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시선: 다문화가족 소재 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와 〈완득이〉를 대상으로」, 『한국사상과문화』, 83권(2007).

이기형, 정준, 구승우, 전솔비, 이승준, 박민, 「대중문화 텍스트로 진단하는 다문화주의의 현황: 영화 〈완득이〉를 논의의 주요한 사례와 매개(catalyst)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3호(2014).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코끼리」, 『완득이』,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1권(2012).

이미림, 「다문화서사구조와 문학적 특징」, 『현대소설연구』, 61권(2016).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권 2호(2014).

하용용·김예성, 「『완득이』에 함의된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관한 담론 연구」, 『인격교육』, 10권 2호(2016).

허정,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 다문화주의」, 『다문화콘텐츠연구』, 12권(2012).

Isaac Sequeira, “The Initiation of Chick Mallison”, *William Faulkner: A Centennial Tribute* (New Delhi: Prestige, 1999).

### 3. 웹사이트

<https://blog.naver.com/hanadarin/221545637205> (검색일: 2020년 3월 18일)

<https://blog.naver.com/leemyeongkook/221656080938> (검색일: 2020년 3월 18일)

<https://tinyurl.com/w2wfp6e> (검색일: 2020년 3월 20일)

[https://en.wikipedia.org/wiki/Talking\\_cure](https://en.wikipedia.org/wiki/Talking_cure) (검색일: 2020년 3월 23일)